



보도참고자료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일시	2020. 3. 18(수)	담당부서	수출입과
담당과장	조익노 과장(044-203-4040)	담당자	백종승 사무관(044-203-4049)

오늘부터 수출채권 즉시 현금화 가능 - 수출 중소기업 숨통 틈워줄 것으로 기대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중소기업들이 수출채권을 즉시 현금화 할 수 있는 「수출채권조기현금화보증」을 2020년 3월 18일(수)부터 즉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코로나 19 확산 등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계약 파기, 대금결제 지연 등의 애로를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에게 긴급 유동성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이번 추경으로 수출채권조기현금화보증을 5,000억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 수출채권조기현금화보증은 2019년 추경에 처음 도입되어 출시 4개월 만에 5,400억원이 소진되는 등 기업수요가 많은 제도로
 - 최근 소재부품장비지원센터 및 무역협회 수요조사에서도 수출기업은 코로나19로 수입자 파산, 결제지연으로 인한 자금난을 호소
 - 수출채권조기현금화는 ①수입자의 파산과 상관없이 대금을 회수할 수 있고, ②결제가 지연되더라도 은행서 채권을 즉시 현금화하여 “다음 수출에 대비” 할 수 있는 1석2조의 유용한 제도
 - 정책금융기관인 무역보험공사가 수출채권조기현금화를 보증함으로써, 수출기업은 영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음

□ 코로나 19는 2월말부터 중국 외 아시아, 유럽, 북미 지역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3월 글로벌 판데믹이 선언됨으로써 주요국 증시와 국제유가가 급락하는 등 향후 세계 경제와 교역이 더 어려울 전망

* (증시, 전월비) S&P500 25.4%↓, 다우지수 27.8%↓, 영국 28.5%↓, 프랑스 34.2%↓

* (유가) WTI는 1월6일 63.27\$/bbl 대비 3월17일 26.95\$/bbl (△57.4%)

○ 특히, 우리 주력시장인 미국, 유럽과 신흥시장까지 확산될 경우 수출 중소·중견기업 자금난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

□ 세계 각국도 유동성 공급을 핵심정책으로 추진하여 미국 연준, 유럽 중앙은행(ECB), 일본, 중국도 금리인하와 함께 유동성 공급을 선제적으로 추진중

* (美연준) 제로금리, 7,000억불 규모의 4차 양적완화 재개(3.15), (EU) 1,200억 유로 자산매입 추가, (中) 중소기업 대출 기준율 50~100bp↓, 中소유동성 2,000억 위안 공급, (日) 5,000억엔 유동성 공급

○ 정부는 이러한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긴장감을 가지고 이번 추경을 통해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무역금융을 공급하여 우리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애로를 조기에 타개하도록 지원

□ 산업부는 이 사업이 코로나 19로 인해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숨통을 틔워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 특히 코로나 19로 인해 한계기업 뿐만 아니라 우량기업의 흑자도산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전망

○ 추경 500억원으로 5,000억원 규모의 무역금융을 지원하면 1조2000억원*의 수출유발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

* 보험종목별 수출유발계수('12.6월 현대경제연구원 용역) 적용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과 백종승 사무관(☎ 044-203-404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개요) 수출 중소기업이 수출 물품을 수입자에게 선적 후 수입대금의 조기 유동성 공급을 위해 수입자의 대금 외상기간* 전에 시중은행에 수출채권을 조기에 현금화 → 해외수입자가 은행에 수출대금 미지급시 무보가 보상

* 수출물품을 선적 후 수입자의 대금결제는 통상 180일 이내

- (사례1) 대구 중소기업 S社は 중국 수입자와 수년간 거래중이나, 코로나19에 따른 중국경기 침체로 중국 수입자는 외상기간을 기존 30일에서 90일~120로 연장을 요구함에 따라 추가 수출물품 제작 등을 위한 수출채권을 은행에서 조기에 현금화할 필요
- (사례2) 경남 창원 소재 반도체 부품업체 D사는 반도체 소재를 중국에 수출하고 있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발주 물량이 급감하여 대체시장 발굴이 시급한 상황이나, 장기간의 거래를 통해 신용이 확보된 중국 수입자와는 달리 신규 거래선의 경우 신용이 확보되지 않아 장기간의 여신거래를 요구함에 따라 수출을 이행하더라도 장기간 자금이 묶이게 되어, 추가 수주 및 영업활동이 곤란한 상황에서 수출채권을 조기에 현금화할 필요

< 주요 내용 >	< 구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무보 보증을 통해 수출대금을 외상기간 없이 즉시 현금화하여 추가 수출품 제작자금 등 유동성 공급 ▸ (수요) '19.8월 추경개시 이후 4개월 만에 5,469억원 지원 완료 등 시장 수요 풍부 	

- (예산) 수출채권 조기현금화보증 지원(5,000억원) : 500억원

* 5,000억원(지원목표) = 500억원(예산) × 10배('19년 추경 수출채권조기현금화배수)